2019. 4. 6.
국가직_9급_국어

합격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정채영 국어

cafe.daum.net/chaeyeongsaem

[2019년 국가직 9급 국어 영역별 출제 현황]

대단원	소단원	
문 법	음운론	1
	형태론	1
	문장론	1
	의미론	2
	소 계	5
어 휘	한자 성어	1
	소 계	1
비문학	사실적 독해	4
	추론적 독해	2
	독서 화법 작문	3
	소 계	9
문 학	현대 문학	3
	고전 문학	2
	소 계	5
합 계		20

[2019년 국가직 9급 국어 영역별 출제 경향]

| 문 법

문법 영역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었다. '음운 변동의 유형', '품사의 파악', '높임 표현의 이해', '단어 간의 문맥적 의미 파악', '의미의 변화' 등에서 '이론 문법' 위주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어문 규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과거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 문제의 대부분이 어문 규정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에서 문법 지식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문법의 개념을 기준으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여 학습해야 한다.

| 어 휘

어휘 문제는 주로 고유어의 의미, 한자어의 독음과 표기, 그리고 한자 성어의 표기와 쓰임 등 기본 어휘력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적절한 한자성어의 선택' 1문제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의 유형이 단순한 반면 사전 학습이 소홀하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학습해 두어야 하는 영역이다.

| 비 문 학

비문학 영역의 출제 문항 수는 9문제로 나머지 분야에 비해서 출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와 '독서, 화법, 작문'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사실적 독해'의 영역에서는 '개괄적 정보의 확인', '글쓰기 전략의 파악, 글의 논리적 배열, 글의 전개 방식 파악'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고, '추론적 독해'의 영역에서는 '숨겨진 정보의 추론,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파악' 문제가 1문제씩 출제되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눈에 뜨이는 것은 '화법' 영역에서 '말하기와 듣기'의 출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말하기 방식의 이해, 토론의 논제 파악, 공감적 듣기'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국가직 시험의 경우 비문학 영역의 출제 비율은 높지만 문제의 난도는 높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문 요약하기와 시간 조절하기에 중점을 두고 충실히 연습을 해 두면 비문학 독해의 점수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 문 학

독해의 한 축인 문학의 출제 비율도 높은 편이다. 현대 문학에서는 '시의 표현상 특징, 소설의 표현상 특징, 희곡의 이해'가 1문제씩 3문제 출제되었고, 고전 문학에서는 '가사 작품의 이해', '고대 소설의 이해' 1문제씩 2문제 출제되었다. 문학의 출제 비율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고전 문학 작품의 지문 분석과 현대 문학 작품의 독해 유형 파악 등 문학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문 1.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 나서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 아닐까?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정답 풀이]
품사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② '㉡,㉢'이다.
㉠ 다른(형용사): 형용사 '다르다'는 용언의 기본적 기능인 서술 기능을 갖고 있으며,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나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관형사 '다른'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뜻을 나타낸다. ㉠의 '다른'은 '쌍둥이의 성격이 같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내어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 크지(동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을 결합해 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의 '크지'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는 뜻을 가지며, '큰다'처럼 '-는다'가 자연스럽게 결합되므로 품사는 '동사'이다.
㉢ 나서(동사):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는 뜻을 가진 '나다'는 동사이다.
㉣ 허튼(관형사): '허튼'은 '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의 의미를 가진 관형사이다.
㉤ 아닐까(형용사): '아닐까'의 기본형 '아니다'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문 2. 다음의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
③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④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

정답 ①
[정답 풀이]
제시된 조건에 맞는 논제는 ①이다.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긍정 평서문이며, '징병제도'라는 하나의 쟁점으로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고, 정서적 표현이 없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이므로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된다.
③ '야만적인'이라는 표현은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한 편에 유리하게 사용되는 정서적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④ '내신 제도'의 개혁과 '논술 시험'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쟁점이 나타나므로, 이는 제시된 조건을 위배한 논제이다.호가 유사하다면, 대응되는 개념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문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
> – 이강백, 「파수꾼」에서 –

①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②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③ 해설자는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한다.
④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정답 ③
[정답 풀이]
해설자가 소개한 것은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버지가 아니라 파수꾼이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라는 부분은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전달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장 "이곳은 황야입니다."와 두 번째 문장 "망루가 세워져 있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네 번째 문장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변할 겁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파수꾼의 얼굴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은 '파수꾼이 하늘을 등지고 있어서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인다'는 진술을 통해 나타난다.

문 4.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
>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①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③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④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정답 ④
[정답 풀이]
'공감적 듣기'란 상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청자가 화자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한다. 지문에서 정아가 긴장해서 팀장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는 말에 대해 수빈은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라고 하여 정아가 한 말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공감적 듣기' 중 '반복하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빈이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한 내용은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수빈은 "정말?"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수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해 봐."라고 하여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③ 수빈은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라고 하여 혼란스러운 감정을 상대방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더 알아두기] 공감적 듣기

소극적인 들어주기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대화의 맥락을 조절하며 격려하는 것 • 비언어적 방법 사용: 눈 맞추기, 고개 끄덕이기, 적절한 표정 짓기 등을 통해 공감을 표현함. • 맞장구치기: 적절한 맞장구를 통해 상대방의 말하기를 격려함. 예 아, 그렇구나.
적극적인 들어주기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반복하기: 상대방이 한 말의 내용을 적절히 반복하여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표현함. • 감정 이입하기: 감정 이입을 통해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를 추측하여 말함. 예 너 정말 기분이 나빴겠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문 5.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엌일'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변동 전		변동 후
㉠	XaY	→	XbY(교체)
㉡	X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	XaY	→	XY(탈락)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①
[정답 풀이]
'부엌일'은 합성어로, '부엌'과 '일'이 결합한 말이다. '부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부억]으로 발음하고, '일'은 [일]로 발음한다. 두 어근이 만나 합성어가 되면서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ㄴ' 음이 첨가되어 [부억닐]로 발음된다. 이후 비음화에 의해 앞말의 받침이 'ㅇ'으로 바뀌어 [부엉닐]이 된다. 따라서 [부엌일>부억일>부억닐>부엉닐]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음운 첨가(첨가), 비음화(교체)를 거치게 되므로 음운 변동 유형으로 알맞은 것은 ① ㉠ '교체'와 ㉡ '첨가'이다.

✚ [더 알아두기] 음운 변동 유형

교체(交替)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동화(비음화, 유음화), 'ㅣ' 모음 역행 동화, 구개음화, 두음 법칙, 된소리되기 등
축약(縮約)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모음 축약
탈락(脫落)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ㄹ' 탈락, 'ㅎ' 탈락), 모음 탈락('ㅡ' 탈락, 'ㅏ/ㅓ' 탈락) 등
첨가(添加)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음운 첨가('ㄴ' 첨가)

문 6.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자: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찬성 측: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반대 측: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찬성 측에 대해 반론해 주시지요.

반대 측: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의 범위부터 규정하기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체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에 근거한 시민의 고발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①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④
[정답 풀이]
반대 측 발언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라는 부분을 통해 반대 측이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친숙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유추'라고 하는데 찬성 측의 발언에서 '유추'의 방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② 찬성 측은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했을 뿐,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반대 측은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하였을 뿐,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 7.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다.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을(를) 통해 드러난다. (㉠)은(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 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이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이다.

	㉠	㉡	㉢
①	골계(滑稽)	해학(諧謔)	풍자(諷刺)
②	해학(諧謔)	풍자(諷刺)	골계(滑稽)
③	풍자(諷刺)	해학(諧謔)	골계(滑稽)
④	골계(滑稽)	풍자(諷刺)	해학(諧謔)

정답 ④
[정답 풀이]
지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골계(滑稽), 풍자(諷刺), 해학(諧謔)'이다(④). 지문의 첫 번째 문장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다"라는 진술을 통해 '풍자와 해학'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장 '풍자와 해학'은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단어의 위상을 정리하면 ㉠에는 '풍자와 해학'을 포괄하는 상위 정보인 '골계'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문 8.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보기>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를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길 희망한다. (㉣)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정답 풀이]
<보기>에 제시된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은 '기도'가 뉴스'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핵심어는 '아침기도', '저녁기도', '뉴스'이다. 아침과 저녁은 '시간'을 나타내는 정보이고, '기도'는 '신앙심'과 관련된 정보이다. ㉠의 앞 문장은 "시간 규범을 따른다."로 끝났고, ㉠의 뒤 문장은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는 '시간'과 '신앙심'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임을 알 수 있다.

문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헌 먼덕[1]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 개 짖을 뿐이로다
와실(蝸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었으랴
북창(北窓)을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 대승(戴勝)[2]은 이내 한을 돋우도다
종조(終朝) 추창(惆悵)[3]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나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에서 –

※1) 먼덕: 짚으로 만든 모자
2) 대승(戴勝): 오디새
3) 추창(惆悵): 슬퍼하는 모습

① ㉠은 실재하는 존재물이고, ㉡은 상상적 허구물이다.
② ㉠은 화자의 절망을 나타내고, ㉡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
③ ㉠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은 화자의 외양을 상징한다.
④ ㉠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은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정답 ④
[정답 풀이]
"풍채 적은 형용에 개 짖을 뿐이로다"라는 부분에서 '풍채 적은 형용'은 헌 짚으로 만든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는 화자의 모습이고 이를 보고 ㉠'개'가 짖는 것이므로, '풍채 적은'을 통해 '개'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대승(戴勝)'은 '오디새'를 의미하는 말인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내 한을 돋우도다'를 통해 ㉡'대승(戴勝)'이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 ㉡ 모두 실재하는 존재물이다.
② ㉠은 초라함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므로 화자의 절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은 한을 돋게 하는 소재이므로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③ ㉠, ㉡ 모두 관련이 없다.

✚ [더 알아두기] 박인로, '누항사'
조선 광해군 3년(1611)에 박인로가 지은 가사. 경기도 용진에 은거하고 있을 때 이덕형이 찾아와 사는 형편을 묻자 작가가 이에 화답하는 뜻으로 지은 가사로,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노계집≫에 실려 전한다.

✚ [더 알아두기] 현대어 풀이
헌 짚으로 만든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구나./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북돋는구나./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게 들리는구나./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문10.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겹발을 비스듬히 걷으니 비취새가 보이는데
게으르게 은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금 재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풀섶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뉘 집의 연못가에서 풍악 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 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에서 –

① 琴瑟之樂　② 輾轉不寐
③ 錦衣夜行　④ 麥秀之嘆

정답 ②
[정답 풀이]
제시된 작품은 허난설헌의 '사시사(四時詞)'로 주제는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이다. 화자의 상황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잠 못 이루는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성어는 ②의 輾轉不寐(전전불매)이다. '輾轉不寐(전전불매)'는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말로,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한자 성어에 '輾轉反側(전전반측)'이 있다.
[오답 풀이]
① 琴瑟之樂(금슬지락):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하며, '琴瑟之樂(금실지락)'의 원말이다.
③ 錦衣夜行(금의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닌다는 뜻으로, 자랑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아무 보람이 없는 일을 함을 이르는 말.
④ 麥秀之嘆(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문11.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다.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에서 이 문장의 주체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되므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활용하여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이 문장의 객체는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도 높임의 대상이 되므로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상대방이 발화자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를 활용하여 격식을 갖추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체인 '아버지'를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활용하여 높이고 있다. 객체인 '할머니'를 특수 어휘 '모시고'를 활용해 높이고 있다. 상대 높임법의 경우 '해라'체의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상대방을 낮추고 있다.
② 주체인 '제가'는 높이지 않았고, 객체인 '어머니'를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상대 높임법의 경우 '해요'체의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④ 주체인 '주민 여러분'을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객체 높임법은 나타나지 않았고, 상대 높임법의 경우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 [더 알아두기] 높임 표현

구 분	높임의 대상	높임의 실현 방법
상대 높임법	화자의 말을 듣는 상대	• 종결 어미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 '께서, -(으)시-' 등 • '편찮다, 잡수다' 등
객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 동작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 '께' • '여쭈다, 드리다, 뵙다' 등

문12.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학(御用學)의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釀造)한다.//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하여,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

① 직설적인 어조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②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③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이 시에서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고 함으로써 '전통과 권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도 죽 가래로 밀라고 하여 '기존의 질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흐르게 하라./바다로 몰아 넣라." 등을 통해 직설적인 어조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국경이며 탑이며 울타리"는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넣어야 하는 존재로, "날새"는 하늘을 흐르는 존재로, '노래'는 "날새"처럼 "한 바람 한 햇빛" 속에서 한 가지로 흐르게 해야 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것(국경이며 탑이며 울타리)과 자연적인 것(날새)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죽 가래(넉가래)는 곡식이나 눈 따위를 한곳으로 밀어 모으는 데 쓰는 기구이다. '죽가래'로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를 바다로 몰아 넣"으라고 한 부분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13. ㉠ ~ ㉣ 중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우는데, ㉠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한때나마 빈방살이 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원성이 되니 ㉡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 것인가. 임 그리워 서러운 마음 밥맛없어 밥 못 먹고 불안한 잠자리에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으로 상처가 쌓여 피골이 상접하고 양기가 쇠진하여 진양조 울음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을 따라 갈까 보다. 천 리라도 갈까 보다. 만 리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쉬어 넘고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 동선령 고개라도 임이 와 날 찾으면 신발 벗어 손에 들고 아니 쉬고 달려가리. ㉢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잊고 나의 사랑 옮겨 다가 다른 임을 사랑하는가? ㉣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봄눈 녹듯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 작자 미상, 「춘향전」에서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정답 풀이]
'서술자의 개입'이란 작품 밖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은 등장인물인 춘향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을 한 것으로, 이 부분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에서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 "심장인들 아니 상할 것인가"에서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에서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의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간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둥이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몫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밴 것을 차마?

이때에 누구의 입에선가, 때레라! 하는 고함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간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욱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거 누구야? 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간난이 할아버지 턱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즈반이웨다레"

하는 것은 동장네 절가였다.

– 황순원, 「목넘이 마을의 개」에서 –

①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② 신둥이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
③ 간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다.
④ 동장네 절가는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정답 ④
[정답 풀이]
지문의 마지막 부분 "누가 빈틈을 냈어?~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를 통해 누군가가 '빈틈'을 낸 것을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동장네 절가는 "아즈반이웨다레(아저씨로구려)"라고 하여 빈틈을 제공한 사람이 간난이 할아버지임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동장네 절가가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때레라!", "아즈반이웨다레" 등의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등의 상황을 통해 억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에서 빠져나갈 틈을 엿본다는 것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므로 신둥이의 새파란 불이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새파란 불이란~신둥이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몫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를 통해 간난이 할아버지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15.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가) 찬성공 형제께서 정경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다.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하고 꾸짖었다.

(나) 전기수: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 소설을 읽었는데,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과 같은 전기소설이었다. …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가장 재미있고 긴요하여 매우 들을 만한 구절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졌다. 이를 바로 '요전법(돈을 요구하는 법)'이라 한다.

①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②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다.
③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④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지문에서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사람인 '전기수'에 대해 진술하는 부분은 있지만, 하층에서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는지의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부윤공의 부인 이 씨의 책 읽는 소리를 "어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라고 하여 꾸짖는 부분을 통해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라는 부분을 통해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와 (나)의 "동문 밖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겨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문 16.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파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
>
> 또한 고전파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 보자고 주장하였기에 '옛것에서 배우자는 의미의 고전'과 '청정하고 우아하며 흐림 없음,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름으로서의 고전'을 모두 지향하게 되었다.
>
>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고전파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파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파 음악의 성격과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①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힌다.
② 고전파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③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④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정답 ③
[정답 풀이]
1문단에 고전파 음악은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였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글쓰기 전략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라고 한 부분에서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고전파 음악의 음악가를 예로 들어 고전파 음악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1문단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문17.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 (가)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
> (나)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②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③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정답 ①
[정답 풀이]
(가)는 '합리론'과 '경험론'이 '감각'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차이를 진술한 문단이다. 합리론이 '감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데 비해 경험론은 관념과 판단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하여 '감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과학적 연구'와 '실용적 기술 개발'이 '경험적 자료'에 대해 가지는 경계심의 차이를 진술한 문단이다.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용적 기술 개발"은 이와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 '경험적 자료'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는 진술은 적절한 추론이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라 (가)에 나타난 '합리론자'의 생각이다. 또한 (나)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가 아니라 '경험론적 사고'를 우선함을 알 수 있다.
③ "과학적 연구는~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라고 했으므로, 과학 연구가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일상생활에서~감각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였을 뿐, 감각에 대한 신뢰가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문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믿기 어렵겠지만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꼴이다. 이사한다고 짐을 내려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미국에서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
>
> 남자들이 군에 가 훈련을 받을 때 비라도 추적추적 오게 되면 자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며 따뜻한 방에서 입에 자장을 묻히는 장면은 정겨울 수밖에 없다. 프로 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음식이 맞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겐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①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②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③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④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정답 ④
[정답 풀이]
3문단의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부분을 통해 자장면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장면이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피자가 편리한 음식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부분을 통해 자장면과 피자가 이국적인 음식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겐 안성맞춤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자장면과 피자가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임을 알 수 있다.

문19.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①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②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③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④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말미'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을 의미하는 고유어이고, '휴가(休暇)'는 '직장 · 학교 · 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을 의미하는 한자어이다. 이 두 어휘는 '비슷한말'로 여전히 쓰이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을 설명하는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고유어 '가을걷이'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의 뜻으로서, 한자어 '추수(秋收)'와 동의어이다. 따라서 '가을걷이'와 '추수'가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으므로, 글의 내용을 설명하는 예로 적절하다.
④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으므로, 글의 내용을 설명하는 예로 적절하다.

문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디디티(DDT)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나) 그렇지만 이 유기 염소계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디티는 토양이나 물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 게다가 디디티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내에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 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깨져 버려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다) 디디티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디디티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디디티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디디티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디디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디디티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기 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라) 이와 같이 디디티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 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② (나)는 디디티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④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다)의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디디티가 검출되었고"와 "펭귄 몸속에서도 디디티가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디디티의 검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디디티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와 "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는 부분은 '사용 금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생산 중단과 사용 금지 현황을 진술'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중심 화제인 '지속성 농약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② (나)는 '분해되지 않는다-그래서-축적하게 된다-이렇듯-축적하게 되면 장애를 일으켜- 때문에-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진술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설명 방식을 쓰고 있다.
④ (라)는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